

2026  
제1권

# 해양수산 ODA 리포트

## 목차

- ①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 ② 주요 의제
- ③ 전문가 기고
-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⑤ 주요 행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

# 01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 세계은행(WB), 인도 해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 승인

- 세계은행(World Bank) 이사회는 인도 타밀나두 주와 카르나타카 주 해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Strengthening Coastal Resilience and the Economy Project, SHORE)을 승인했다. 본 프로그램은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플라스틱 오염 저감, 고용 및 소득 기회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sup>1)</sup>
- 인도는 약 2억 5천만 인구가 어업, 운송, 관광 등 해안 관련 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18,000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해안이 중요한 생태·경제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총 11,000km 이상의 해안선 중 약 3분의 1이 해안 침식과 극한 기후 현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과도한 어업, 맹그로브 숲 파괴, 도시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세계은행은 해안 복원력 및 경제 강화(SHOR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타밀나두 주와 카르나타카 주 내 약 3만 헥타르의 해양 지역 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을 포함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등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정부 기관 및 지역 사회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더불어 본 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생태관광 육성을 병행하는 접근을 취해 플라스틱 폐기물 가치사슬 강화와 친환경 해변 조성을 통한 해안 지역 사회의 경제적 기회 확대를 지향한다.
- 본 프로그램에는 총 2억 1,200만 달러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자금이 투입되며, 6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포함해 최종 만기 23년 조건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본 사례는 해양 침식·플라스틱 오염·생태계 취약성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협력국의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 복원과 고용·소득 창출을 연계하는 통합형 해양 ODA 사업으로 참고할 수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효림 연구원  
hrchung@kmi.re.kr

1) World Bank, New World Bank Program to Protect Indian Coastline, Provide More Jobs for 100,000 People in States of Tamil Nadu and Karnataka, <https://zrr.kr/VPOZV7>(검색일: 2025.12.15.)

## 유럽위원회(EC), 서아프리카 지속가능해양 프로그램(WASOP) 출범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서아프리카의 해양 및 연안 자원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속가능해양 프로그램(West Africa Sustainable Ocean Programme, WASOP)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sup>2)</sup>
- 본 프로그램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와 서아프리카 연안 13개국(베냉,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주체 간 협력 하에 시행된다.
- WASOP은 ① 해양 거버넌스 강화, ②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지원, ③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복원 등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900만 유로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연안 지역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IUU 어업 완화, 공유 어종 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과학적 컨설팅 제공, 지역 어업 거버넌스·정책 및 다자간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소규모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식 함양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 또한 기술 지원 시설 설립,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해양 경제 정책·규제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해양보호구역(MPA) 관리 도구 고도화,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BBNJ에 부합하는 국경 간 해양 보전 등을 추진하는 한편, 1천 만 유로 규모의 소규모 보조금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참여와 회복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본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ODA를 단일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기구-연안국-국제기구가 결합된 다층적 거버넌스 패키지로 설계하여 복수의 협력 주제를 하나의 프로그램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 일관성과 규모의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효림 연구원  
hrchung@kmi.re.kr

2) European Commission, West Africa Sustainable Ocean Programme(WASOP),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rogramming/programmes/west-africa-sustainable-ocean-programme-wasop\\_en?utm](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rogramming/programmes/west-africa-sustainable-ocean-programme-wasop_en?utm)(검색일: 2025.12.17.)

## 베트남, IUU 어업 대응 및 지속가능 수산업 구조 강화

- 베트남 정부는 자국 어업 정책을 개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저감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동했다.<sup>3)</sup>
-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IUU 어업 퇴치와 관련해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해왔으며, 단순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산업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17년 유렵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받은 '옐로우 카드'를 해제하고 국제적 명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베트남 IUU 어업 방지 국가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어선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를 완료했으며 정확성과 완전성 기준을 충족했다. 모든 어선은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해 관리되며, 등록 기록, 면허 및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에 걸쳐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통합 관리된다.
- 또한 항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출입 통제와 어획물 추적 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중부 지역의 연안 지방에서는 어부들이 전자 신고와 조업일지를 향해 전후로 의무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했다.
- 불법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설치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수동 검사 업무량을 60~70% 감소시켰으며, 특히 지아라이(Gia Lai)시의 경우 주당 6시간 이상 연결이 끊기는 선박 수가 500~700척에서 약 10척으로 대폭 줄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 디지털 기술 도입 뿐 아니라 IUU 어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획 중심 어업에서 해양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어업 압력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총리는 2025년 초 칸호아(Khanh Hoa) 지역의 첨단 해양 양식 개발 사업을 승인했으며, 약 3,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해양 어류 양식장 지원 및 연안 해역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 본 사례는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직면한 IUU 어업 근절 문제를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국제적 조치 해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선·어획량만 관리 전산화, VMS 설치 등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해양 양식 확대를 통한 산업 구조 전환으로 어업 압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IUU 대응의 현실적이고 확장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효림 연구원  
hrchung@kmi.re.kr

3) Vietnam News, Việt Nam tightens fisheries controls, shifts to marine aquaculture for the IUU fishing removal, [https://vietnamnews.vn/society/1732408/viet-nam-tightens-fisheries-controls-shifts-to-marine-aquaculture-for-the-iuu-fishing-removal.html?utm\(검색일: 12월 19일\)](https://vietnamnews.vn/society/1732408/viet-nam-tightens-fisheries-controls-shifts-to-marine-aquaculture-for-the-iuu-fishing-removal.html?utm(검색일: 12월 19일))

## 필리핀, 양식 분야 고용 연계 훈련으로 새우 생산 2배 확대

- 필리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일본정부와 협력하여 양식 분야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기술훈련 및 현장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새우 생산량을 2배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편 필리핀 양식 산업은 전체 수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부문으로, GDP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생산액은 약 39억 달러, 수출액은 10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세계 7위의 양식 생산국으로 분류된다.<sup>4)</sup>
- 총 58명의 훈련생은 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새우 부화부터 양성 및 가공, 식품안전, 공급망 관리 등 실무 역량을 습득했다. 훈련생의 직접적인 생산 참여로 새우 생산량이 기존 50톤에서 100톤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24명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이는 단기 공공일자리 성격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고용 전환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본 프로그램은 필리핀 기술교육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과 지역 양식 산업 노·사·정 협의체(Industry Tripartite Council for Aquaculture, ITC)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취약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동시에 지역 양식 산업의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설계됐다.<sup>5)</sup>
- 이번 사례는 향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및 개발도상국에서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산업 연계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4) Business Mirror, Aquaculture sector remains largely informal-DOL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29/aquaculture-sector-remains-largely-informal-dole/n>(검색일: 2025.12.01.)

5)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orkers secure jobs in aquaculture, help double shrimp production, <https://www.ilo.org/resource/news/workers-secure-jobs-aquaculture-help-double-shrimp-production>(검색일: 2025.12.01.)

## 피지, 해양 필수서비스센터 개소... 지역 해양안보 협력 거점 강화

- 피지 정부는 2025년 라미(Lami)에 해양 필수서비스센터(Maritime Essential Services Centre, MESC)를 공식 개소했다. 피지의 회복력, 주권 그리고 역내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해양 인프라로 보여지며 총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조성됐다.
- 본 센터는 호주 정부의 지원을 통해 건설됐으며 지난 2년간 1,200명 이상의 현지 인력 고용을 창출했다. MESC는 향후 피지의 해양 운영 허브로 기능하며 피지 해군, 수로국 등 주요 기관이 입주한다. 라부카 총리(Rabuka)는 연설을 통해 MESC가 피지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 거점으로서, 합동·연합 작전과 정보 공유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MESC에는 해양 영역 융합센터(Maritime Domain Fusion Centre)가 함께 설치되며, 이는 피지 해군, 경찰, 수산 당국, 세관 및 국제 파트너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해양 정보 허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마약 밀수, 초국경 범죄 등 해양 위협 대응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sup>6)</sup>
-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지역 공급망 활성화 등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양 감시, 해양 정보, 연안 서비스, 연구 및 해양 관련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MESC는 현재 피지 해양안보 분야에서 최대 단일 투자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대적 시설과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피지가 블루 퍼시픽(Blue Pacific) 내 핵심 해양안보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sup>7)</sup>
- 이번 해양 필수서비스센터 개소는 피지의 해양 주권 수호,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불법 활동 대응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며 태평양 도서국 중심의 지역 해양안보 거버넌스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주목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6)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n Fiji, Maritime Essential Services Centre, <https://www.pmooffice.gov.fj/vuvale-maritime-essential-services-centre-mesc-officially-opened-03-10-2025/>(검색일: 2025.12.15.)

7) Australia Pacific Business Connections, New Maritime Centre strengthens regional capability with 1,200 jobs, <https://afbc.org.au/2025/new-maritime-centre-strengthens-regional-capability-with-1200-jobs/>(검색일: 2025.12.15.)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아시아 산업 탈탄소화 확산 논의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순환 경제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부터 정책 수립까지(Scaling Circular Solutions: From Pilots to Policy in Asia)’ 고위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플라스틱 오염과 시멘트 부문 배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탈탄소화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 아시아는 저탄소 산업 성장으로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분야 모두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생산·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저배출·순환형 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적 해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참가자들은 ‘해양 플라스틱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Ocean Plastic Turned into an Opportunity in Circular Economy, OPTOCE)’ 시범 프로젝트에서 얻은 주요 교훈을 공유했다. 이 프로젝트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공동 처리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 또한 태국 시멘트·콘크리트 부문 탈탄소화 프로젝트는 순환성 강화, 공동 처리 확대,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기술·재정의 연계를 통한 산업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sup>8)</sup>
- 본 워크숍은 10월 하노이에서 예정된 후속 지역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며, 각국의 정책 수립과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 등 국제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저배출·순환형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8)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Scaling solutions for low-emission economic growth in Asia: Bangkok workshop highlights pathways to tackle plastic pollution and cement emissions, <https://www.unido.org/news/scaling-solutions-low-emission-economic-growth-asia-bangkok-workshop-highlights-pathways-tackle-plastic-pollution-and-cement-emissions>(검색일: 2025.12.15.)

## 02 주요 의제

### 2025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 개요

- 2025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2회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해양수산 분야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가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한-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한 본 행사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장을 비롯한 국내 해양수산 유관기관 주요 인사와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 고위급 공무원, 국제·지역기구 관계자 등 총 110여 명<sup>1)</sup>이 참석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 등 공동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선도전략인 ‘Korea - Ocean Economy Initiative(K-OEI)’를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 보전,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아시아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아시아 국가, 국제기구 관계자를 패널로 구성하여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미래 비전 및 목표, 협력 가능 분야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하였다.
- 본 행사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2025년 10월 22일에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정책 성과 확산 및 수요 기반 ODA 사업 발굴 프로그램인 BADA(Best Achievement program in oceans and fisheries oDA)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 BADA 프로그램에는 아시아 6개국 공무원과 국내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의, 사업 사례 공유, 전문가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원국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ODA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1) 아시아 13개국(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미국,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러시아, 피지, 팔라우, 가나, 케냐) 국제·지역기구 3곳(FAO, BOBP, WB) 등 17개 이상 국가 및 기구 참석(한국 포함)

- 첫째 날에는 한국 해양수산 ODA 정책 및 추진 체계, 사업 제안 절차, 국내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주요 협력 사업 및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국별 해양수산 이슈 및 협력 어젠다를 발표하였다.
- 둘째 날에는 국별 제안 사업(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PCP(Project Concept Paper) 작성을 통해 사업 구체화를 지원하였으며, 국내 해양수산 정책 및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현장 견학을 병행하였다.

## 2. 한국 해양수산부 주요 발표 내용

- 해양수산부는 기후·해양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인 Korea-Ocean Economy Initiative(K-OEI)를 중심으로, 한-아시아 해양수산 국제협력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K-OEI는 기존에 제시된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실행 중심의 국제협력 프레임임을 강조하였다.
  -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 하에 ▲기후위기 대응(녹색 해운, 해양기후변화연구, 블루카본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IUU 어업 근절, 수산자원 관리 강화, 수산시설 현대화 등) ▲해양환경 보전(해양쓰레기 관리,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환경 조사관리 역량 강화 등)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국제오피서버 양성, 해기사 및 여성 해기사 양성 등) 등 해양수산 국제협력 4대 전략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의 정책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 공동 연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3. 주요 토론 내용

### 가. 2025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 아시아 4개국, 국내 4개 기관, 국제·지역기구 2개 기관 등 대표 패널들과 ‘한-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양수산 협력’을 주제로, 1)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2) 중장기 비전 및 목표 3) 협력 가능 분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 방글라데시 수산축산부에서는 수산업이 식량안보와 어민 생계의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남획과 IUU 어업으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단속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체계 구축, MPA 관리 강화, 전자보고·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역량강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서는 광범위한 국토와 지역 간 격차로 인해 통합적인 수산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블루이코노미 정책 강화, 해양보호구역 확대, 쿼터 기반 어업 도입 등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어항 개발과 수산 인프라 현대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필리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IUU 어업,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강화와 과학기술 기반 수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양식업 및 해양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 스리랑카 수산수생해양자원부에서는 노후 어선과 콜드체인 인프라 부족으로 수확 후 손실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에너지 효율형 어선 도입, 친환경 어항 조성, 지속가능한 양식 기술 개발과 어촌 역량강화 교육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벙골만 수산체계프로그램(BOBP)에서는 IUU 어업과 비효율적 어업 관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태계 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위험기반 어획 문서화, 항만국 조치, 전자모니터링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역내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는 남중국해 및 동남아 해역에서 해양범죄 대응과 법 집행 역량이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사법기관 대상 법·제도 교육과 실무 역량강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영역 인식(MDA)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과학·관측 분야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해양생태 모니터링과 연안·원해 관측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와 산업 환경 변화로 양식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학기술 기반 품종개량과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 수산자원 관리, 국제 오피버 파견 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IUU 어업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원관리 분야 국제협력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제 승선실습 및 해기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양 인재 양성 전문기관으로, 해양 인력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나. BADA 프로그램**

- 참석자는 BADA 프로그램을 통해 국별 해양수산 이슈와 협력 어젠다를 발표하고, 한국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방글라데시는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연안 개발을 위해 어획 후 가공·취급 단계에서의 비효율로 인한 높은 어획 후 손실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산물 가치사슬 시스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연안 지역 19개소를 대상으로 한 5개년 중장기 협력 사업을

- 제안하며 어획 후 관리 체계 고도화, 손실 저감 및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스마트·친환경 어항 조성, 투명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도입, 어항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협력 수요를 설명하였다. 특히 북부 자카르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녹색 어항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술·정책 협력을 기대하였다.
  - 스리랑카는 지속가능한 어류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해 양식 적지 발굴, 고부가가치 해양종(참다랑어, 해삼, 굴, 해조류 등) 대상 파일럿 양식장 설치, 대체 생계 제공을 통한 연안 자원 압력 완화, 여성 어업인 복지 향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친환경 양식 기술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벙골만 수산체계프로그램(BOBP)은 벙골만 지역에서 IUU 어업으로 인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위험 기반 어획 문서화, 항만국 조치, 증거 기반 모니터링 및 전자보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IUU 어업을 예방·감축하는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FAO, UNODC와의 기존 협력 경험을 토대로 다자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FAO는 스리랑카 미리사(Mirissa) 어항을 사례로, 친환경 어항 도입을 통한 수산 생산성 제고와 해양관광 연계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원양어업과 연안어업, 해양관광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저탄소 어항 모델 구축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 UNODC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안보 확보를 위해 IUU 어업 탐지·억제 역량 강화, 해양범죄 대응을 위한 법집행 능력 제고, 어획 손실 감축 및 수산물 수출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는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어업 관리와 해양안보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4. 결과 및 시사점

- 2025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통해 한-아시아 간 해양수산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 보전, 해양 인재 양성 등 공동 현안에 대한 양자·다자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본 콘퍼런스는 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함으로써 한-아시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실질적 확대와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기후·해양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목표로 하는 K-OEI(Korea-Ocean Economy Initiative) 4대 전략, 즉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해양환경 보전 ▲인재 양성 및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에는 금번 콘퍼런스와 BADA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협력 안건에 대해,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정례회의인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와 KMI의 한-아시아 해양수산 협력 플랫폼 및 관련 포럼 등 다양한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사업 안건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금번 한-아시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및 BADA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국별 협력 안건에 대해서는 ODA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검토 및 타당성 검토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적합성이 높은 안건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제안·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와의 신규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기후변화, IUU 어업, 해양환경 보전, 해양안보 등 아시아 지역 해양수산 분야의 복합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사진(KICCOF)



패널 종합 토론



단체사진(BADA)

KMI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한덕훈 연구위원, 전혜은 전문연구원, 김주형 전문연구원, 허재영 전문연구원, 이민정 연구원, 정효림 연구원, 임해주 연구원, 이보람 전문사무원, 염승식 사무원  
 jhkim7664@kmi.re.kr

##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 해양 의제의 부상과 국제사회의 시사점

200개국 대표를 포함한 5만 6천여 명의 대표단이 브라질 벨렘(Belém)에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30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0)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석자를 기록한 당사국총회로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개최됐다.<sup>2)</sup> 이는 각국이 10여 년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인 파리협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는 해양이 더 이상 기후변화 논의의 부차적 영역이 아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연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음을 분명히 보여준 회의였다. 브라질 벨렘(Belém)에서 개최된 이번 COP30은 개최국의 특성상 아마존 산림과 함께 해양을 기후 대응의 양대 축으로 전면에 내세웠으며 국제사회 역시 해양 기반 기후 행동(ocean-based climate action)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COP30에서 해양 의제가 주목받은 배경에는 사실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 필요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해양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50%를 생산하고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한다. 해양은 단순히 '지구의 허파'일 뿐만 아니라 지구 최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해양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해수 온난화와 산성화를 초래하고, 해양과 육상 생물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해양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는 이미 위험한 전환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인식 속에서 COP30은 해양을 기후변화 대응의 '피해 대상'이 아닌 '해결책'으로 재정의하는 여러 흐름을 보여주었다. 첫째, 국가 기후정책에서 해양의 위상이 뚜렷하게 강화되었다. COP30을 전후로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인 국가별 기여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90% 이상의 해양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NDC 주기 당시 62%와 비교해 약 30% 증가한 수치이다. 연안국 및 도서국이 제출한 61개국 NDC 내용에는 해상풍력 활용, 해상운송 및 수산·식품 시스템의 탈탄소화, 맹그로브·해초·염습지 등 '블루 카본(Blue

2) UNFCCC,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 Belém, November 2025, <https://unfccc.int/cop30>(검색일: 2025.12.15.)

3) UNFCCC, Ocean-Based Climate Action and Human Rights,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1\\_OBCAaHR\\_V1.3.pdf](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1_OBCAaHR_V1.3.pdf)(검색일: 2025.12.15.)

4) UN, The ocean - the world's greatest ally against climate change, <https://www.un.org/en/climatechange/science/climate-issues/ocean>(검색일: 2025.12.15.)

5) Venegas, R. M., Acevedo, J., & Treml, E. A. (2023). Three decades of ocean warming impacts on marine ecosystems: A review and perspective. Deep Sea Research Part II: Topical Studies in Oceanography

Carbon) 생태계의 복원 및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6)</sup> 이는 해양 관련 조치가 더 이상 부차적 요소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COP30에서는 해양 기반 기후 행동을 실제 이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됐다. COP30 의장국은 UNFCCC 프로세스 내의 '기후 챔피언(Climature Champions)', 기후 및 다자간 이해관계자 연합인 '해양기후플랫폼(Ocean Climate Platform)'와 협력하여 해양-기후 해결책 이행을 위한 '블루 패키지(Blue Package)'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해양 재생 에너지, 수산 식품 시스템, 해양 보전, 해상 운송, 연안 관광 등 5개 핵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2028년까지의 이행 진전을 점검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는 해양 의제를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책임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셋째, 해양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확인되었다. 국제 해역 보호를 강화하는 협약인 공해조약(High Seas Treaty, BBNJ 협정)은 2026년 1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비준 요건을 충족하였다. COP30에서는 이 조약이 국제 해역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었으며 윌리엄 왕자의 어스샷(Earthshot) 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국제적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조명되었다.<sup>7)</sup> 공해조약은 전 세계 해양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에 대해 해양보호구역(MPA)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그동안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했던 국제 해역에 규범적 관리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넷째, 개최국 브라질의 행보는 COP30 해양 의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COP30에서 자국 해역 368만 km<sup>2</sup> 전체를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며 세계적인 해양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브라질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에 19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sup>8)</sup> 이는 해양을 기후변화의 피해 대상이 아니라, 기후 대응과 경제·사회적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COP30의 해양 의제가 성과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다수의 분석과 시민사회 논평은 여전히 해양 기반 기후 행동이 충분한 자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 세계 기후 자원 가운데 해양 기반 해결책에 배분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해양 생태계 보전)는 모든 SDGs 중 가장 심각한 자원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추계에 따르면 SDG 14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490억 달러 규모의 자원

6) Mongabay, COP30: What did it deliver for the ocean?, <https://news.mongabay.com/2025/11/cop30-what-did-it-deliver-for-the-ocean/?utm>(검색일: 2025.12.15.)

7) UNFCCC, Earthshot Prize Names RCC Kampala Official Nominator, <https://unfccc.int/about-us/regional-collaboration-centres/rcc-kampala/earthshot-prize-names-rcc-kampala-official-nominator>(검색일: 2025.12.15.)

8) WRI, RELEASE: Brazil Pledges 100%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ional Waters by 2030, Joins the Ocean Panel at COP30, <https://www.wri.org/news/release-brazil-pledges-100-sustainable-management-national-waters-2030-joins-ocean-panel-cop30>(검색일: 2025.12.15.)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sup>9)</sup> 또한 해양은 산림이나 에너지 전환 분야에 비해 정책적 관심과 예산 배분에서 여전히 후순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COP30은 해양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변 의제에서 중심 의제로 끌어올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양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재인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식 전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양 의제가 제도, 재정 및 이행 구조 속에 얼마나 깊이 통합될 수 있는지가 향후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

9) EARTH, Oceans at COP30: Moving Beyond Pledges to Build an Architecture for Change, [https://earth.org/oceans-at-cop30-moving-beyond-pledges-to-build-an-architecture-for-change/?utm\\_source](https://earth.org/oceans-at-cop30-moving-beyond-pledges-to-build-an-architecture-for-change/?utm_source)(검색일: 2025.12.15.)

## 03 전문가 기고

### 해양 ODA 이야기 : KOICA는 어떻게 필리핀 바다를 정화하고 있는가?

바다와 우리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바다의 오염, 특히 바다로 배출되어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는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여 우리의 산업, 관광, 소비 등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양 환경 보존,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은 아마도 전 세계인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국제적인 노력은 UN의 2030년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에도 드러나 있다. SDGs 14번째 목표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14.11)은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 등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 수준 감소시킨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UN 환경 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은 해양 쓰레기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Plastic Pollution and Marine Litter)을 2012년 6월 발족하고, 해양 쓰레기의 위협을 저감하고, 연구, 인식 증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애초 해양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이 된다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방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면, 쓰레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인지, 쓰레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간 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일단은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ASEAN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다. 그 중에서도 산호초, 맹그로브, 해초 목초지와 같은 생태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잘 알려진 필리핀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7,641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다. 그야말로 바다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섬이 많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보니 해양 쓰레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1.01메트릭톤에 다다른다고 한다<sup>2)</sup>.

1) SDG 14번 목표와 관련하여, 세부목표 14.1, 외에도 14.2(해양 및 해양 생태계 관리 및 보호, 복원력 강화), 14.5(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안 및 해양 구역 보존), 14.7(지속적인 해양자원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 등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2) Pract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Marine Plastic Litter Reduction in Manila (2022)

필리핀환경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은 이틀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 등이 초래하는 생태계 오염의 경제적 손실이 수십억 불 규모라 추산한다. 더 큰 문제는 이중 실제 수거되거나 재활용되는 비중이 작아,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실제 매년 발표되는 해양건강지수(Ocean Health Index)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0년 65점이었다가 2024년 59점으로 하락하였고(같은 기간 전세계 평균은 72점에서 69점으로 하락),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발생하는 쓰레기를 잘 치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쓰레기 배출자이면서 수거자이기도 하지만,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고, 가공해서, 재활용까지 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인식 제고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KOICA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필리핀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했다. 2021년부터 해양환경공단,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현재까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필리핀 해양 쓰레기 관리 모니터링 지침서 작성, 필리핀 공무원 역량 강화, 해양 쓰레기 서범정과 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실질적으로 필리핀 마닐라 해양 쓰레기 저감에 기여를 하였다.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 총 333명의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제공되었고, 10곳의 해양 쓰레기 핫스팟이 지정되어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되었다. 그뿐 아니라,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34회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시행하였는데, 총 2,464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총 9,720kg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운영하여, 재활용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총 696명의 주민이 107.3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물론, 해당 지역 전체 가구 수 대비 참여율은 3~4%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수거된 쓰레기양은 절대로 적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 등의 결과로 2024년 해양 쓰레기 규모가 2023년에 비하여 36%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sup>. 내년에는 본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바다 위 청소부라 불리는 청항선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90톤급 청항선 건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장비 설치와 쓰레기 수거 차량까지 패키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12월 기준, 필리핀 현지 승조원을 한국에 초청하여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 청항선이 2026년 초 정상적으로 필리핀 정부에 인도가 된다면 이는 필리핀 마닐라 해양 쓰레기 저감 활동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건조한 청항선이 필리핀에 인도되고, 이 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 운영되어 실제 쓰레기 수거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ODA를 발판으로 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 사업 경험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ODA 사업 수행이 곧 해외 진출 경험이다. KOICA의 경우, ODA 사업 수행을 위해 2023년 총 3,319억 원, 268건, 2024년 총 4,615억 원, 307건의 신규 계약을 국내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과 체결한 바 있는데,

3) 해당 사업 성과는 필리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 : <https://www.pna.gov.ph/articles/1241887?utm>)

해당 실적 중, 우리 기업을 통한 선박 건조는 최초이다. 즉, 본 사업을 통해 필리핀에 제공한 청항선을 필리핀 측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능하게 하느냐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사업은 해양 ODA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글로벌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의 스케일이 매우 거대하고, 해양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 문제가 남아있는 한 어떤 ODA 사업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가 추진 중인 필리핀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필리핀 해양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며, 한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이를 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KOICA 동남아시아실 최명근 과장**

〈주요 이력〉

- 전) KOICA 조달실 과장
- 전) KOICA 르완다 사무소 부소장
- 전) KOICA 서아프리카실 대리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0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개발: 런던의정서(LP) 이행 지원

#### ▶ 사업 목적

-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학위 프로그램(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s Program; LPEM)\*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 국제전문가 양성 및 몽골·카리브해 비당사국과의 협력프로그램 운영
- \* LPEM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2년제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개도국 공무원 등을 아국(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초청하여 교육

#### ▶ 사업 개요

- ① LPEM 강화 및 확장을 통해 당사국 및 비당사국 개발도상국 대상 해양환경 국제전문가 양성
  - ②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 런던협약 의정서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현장 모니터링 기술적, 제도적 체계 수립 기여 및 조약가입 지원
- 사업기간: 2024~2028년
  - 사업비: 104.08억 원

#### ▶ 사업 대상

-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쿠바, 통가, 페루, 피지, 필리핀 (LPEM), 몽골, 카리브해 국가 등

#### ▶ 추진현황(2025년)

- 3월: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25년 3월, 과테말라)에서 프로젝트 관련 공식 문서(LC/SG 48/6)를 사무국 제출 형식으로 발행
- 4월: IMO와 협력하여 입학 안내를 위한 회람문서(LC/LP.1-Circ.114)를 발행
- 7월: 대상 국제기구(IMO)와 KIOST 사이 Implementing Partnership Agreement (IPA) 체결 완료
- 7월: '25년 가을학기 신규 학생 유치 및 신입생 선발 절차 완료 (7개국 7명)
- 7월: 런던의정서 과학그룹회의 의장 Cristian Mugnai 박사 특강 진행

- 8월: 연안 및 항만 개발 현장(건설 현장, 산업 시설, 관련 기관 등) 단체 견학
- 9월: '25년 가을학기 신입생 입국 및 신학기 교육 과정 시작 완료
-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 LPEM 진행 보고 공식 문서(LC 47/INF.3) 제출
- 11월: 런던의정서 사무국 Andrew Birchenough 초청 특강 진행

▶ 관련사진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



IMO 본부 프로그램 홍보 배너 및 LPEM 대외 활동

▶ 향후계획(2025년)

- 12월: IMO 프로젝트팀이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 12월: 잠재적 주요 협력 기관인 CCS(Cartagena Convention Secretariat)와 현물 지원(in-kind) 이행파트너십협정(IPA) 체결 추진 중

▶ 기대효과

- 국제기구(IMO) 및 국제협약(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발언권 강화
- 수원국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
- 런던의정서 교육 프로그램(LPEM) 강화를 통해 해양환경 국제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
- 몽골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구축을 지원하여 신규 가입국 확대를 유도하고, 글로벌 협약 이행 기반을 공고화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연식 책임연구원  
yeonschang@kiost.ac.kr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 ▶ 사업 목적

-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기법 적용과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민관 공동어업관리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생계 기반 제공

### ▶ 사업 개요

- 민관 공동어업관리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생계 전략 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 프레임워크 및 교육 및 훈련자료 개발·보급, 지역 맞춤형 민관 공동어업관리 체계 실행, 어업인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2020년 6월~2026년 6월
- 사업비: 50억 원

### ▶ 사업 대상

- 캄보디아 스통트렝(Stung Treng), 크라티에(Kratie) 주
- 모잠비크 빌랑쿨루(Vilankulos) 구 이남바네(Inhambane)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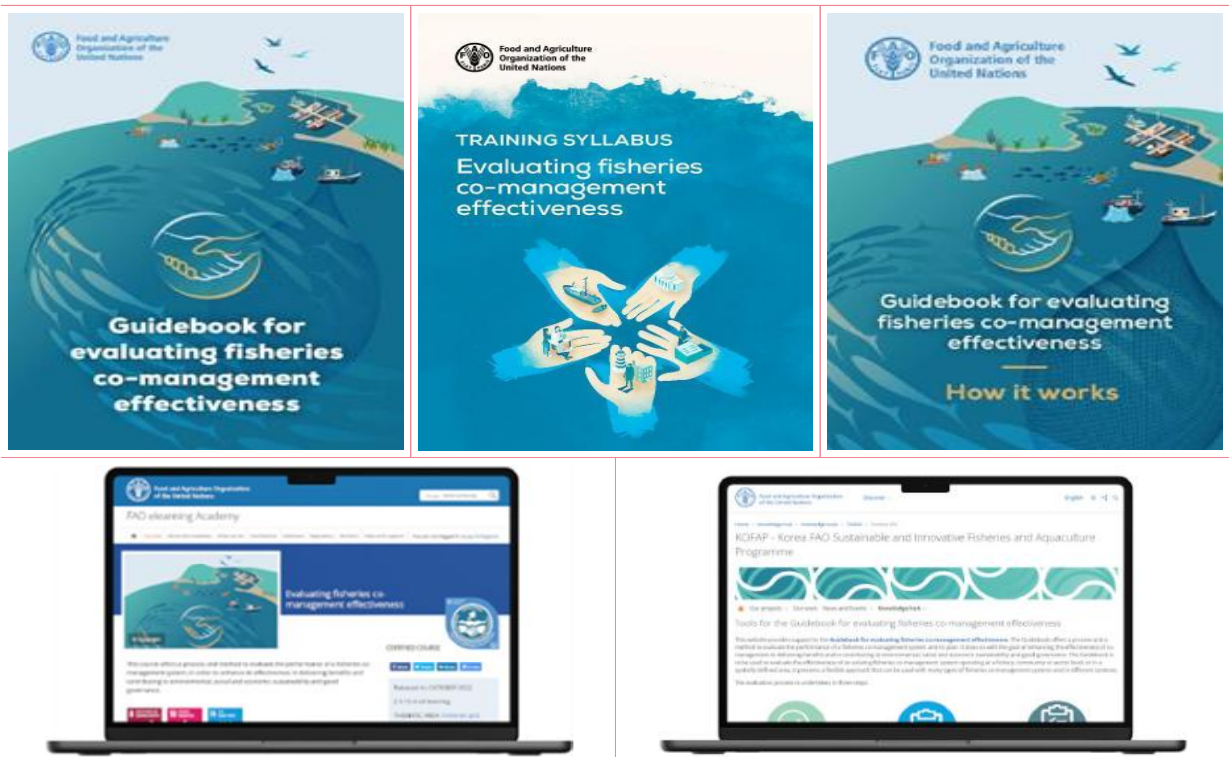
캄보디아·모잠비크 지속 가능한 민관 공동어업관리 발전을 위한 협의

### ▶ 추진현황(2020년-2025년)

- 산출물 1: 민관 공동어업관리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및 교육 자료 배포  
민관 공동어업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자료 개발 및 보급. 민관 공동어업관리 효과성 평가 가이드북, 핸드북, 도구 상자, e-러닝 과정 등 다국어 교육·보조자료 제작을 통해 다양한 국가 및 지역 맥락에서의 접근성 및 실용성 제고.
- 산출물 2: 수원국 어업관리 현황 타당성 조사 및 이행 계획 수립  
수원국별 어업관리 현황, 민관 공동어업관리 체계, 생계 다변화 기회 평가를 위한 타당성조사 수행. 국가 수산당국 및 어업 공동체와의 협의와 참여적 절차를 통해 수원국 이행계획 수립.

- 산출물 3: 수원국 민관 공동어업관리 시스템 구현 및 교육 자료 제공  
 캄보디아 및 모잠비크의 생태적·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한 민관 공동어업관리 체계 구축.
  - (모잠비크) CCP(Community Fisheries Councils) 재활성화를 통한 규약 제정,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및 공동관리 협약 체결 등 지역 거버넌스 강화.
  - (캄보디아) CFiAMP(Community Fisheries Area Management Plan) 개정·승인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및 포용적 거버넌스 원칙 통합, 양식 및 어촌관광 기반 생계 다변화 지원.
- 산출물 4: 국가·지역 차원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계 전략 개발  
 양국에서 민관 공동어업관리 및 생계 다변화를 위한 포괄적 역량강화 활동.
  - (모잠비크) 중앙정부 및 지역 이해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및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 설계.
  - (캄보디아) 국가·지역 차원의 민관 공동어업관리 효과성, 양식, 어촌관광, 가치사슬 개발 관련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차학습 촉진.
- 산출물 5: 모니터링·평가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 배포  
 프로젝트 웹페이지 상시 업데이트 및 전용 이메일 채널 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구독 기반 KOFAP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 주요 성과의 지속적 공유.

▶ 관련사진



민관 공동어업관리 효과성 평가 주요 출판물: 가이드북, 핸드북, e-러닝 과정 등



캄보디아 생계 다변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양식업 및 어촌관광



모잠비크 생계 다변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리다이빙 및 관광업

▶ 향후계획(2026년)

- 산출물 4: 생계 다변화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기자재·물품(양식장, 사료 제조기, 냉동고 등) 조달 마무리
- 산출물 5: FAO KOFAP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자료 통합 배포 및 보고일정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 기대효과

- 민관 공동어업관리 가이드북, 핸드북, 대륙별 모범사례 및 FAO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민관 공동어업관리 접근법의 확산 도모
- 국가 맞춤형 실행전략과 체계적인 민관 공동어업관리 접근방식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역량 강화 및 어업 기반 소득 창출 여건 조성에 기여
- 정책 프레임워크, 실용적 도구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정부와 어업 공동체 간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의 제도적 정착 도모
- 양식업, 생태관광 등 현장 중심의 생계활동 발굴·확산을 통해 어업 공동체의 소득 다변화 및 자립역량 강화

- 생계 다변화 전략과 민관 공동어업관리 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생태계 회복력 증진, 농어촌 빈곤 완화, 식량 및 소득 안보 확보 등 장기적·지속가능한 수산발전 기반 마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오광석 선임수산관

kwangsuk.oh@fao.org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김윤제 컨설턴트

yunje.kim@fao.org

## 해수열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지 남태평양대학교 그린 캠퍼스 시범사업

### ▶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 활용 담수화 및 수경재배 보급. 운용 교육, 생활 활용 및 시범 판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부족한 물과 식량 공급을 통해 지역산업화 가능성 타진.
- 피지 USP(University of south pacific) 캠퍼스 내 해수냉방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 및 수자원의 확보

### ▶ 사업 개요

- 피지 수바 소재 남태평양대학교 캠퍼스에 해수열 이용 친환경 냉방에너지 공급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담수화 및 식수 공급, 해수활용기술, 수경재배 등 보급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리질리언스 강화
- 사업기간: 2024~2026년
- 사업비: 50억 원

### ▶ 사업 대상

- 피지, USP(University of south pacific) Marine Campus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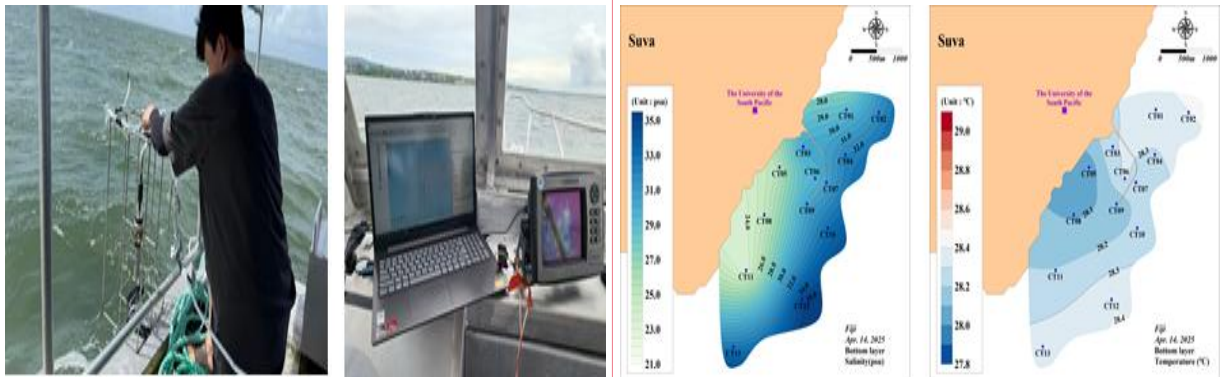


피지 해수열 및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 구축 예정지

### ▶ 추진현황(2025년)

- '24년 12월: 사업 착수 및 착수 보고
- 4월: 1차 SSUA 역량강화 교육 및 현지 해양 조사
- 7월: 2차 SSUA 역량강화 교육 및 현지 냉방/식수 공급처 사전 조사
- 11월: 1차 ODA 완료 보고 및 2차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 관련사진



피지 해수열 활용을 위한 해양 자료 조사



피지 해수열 ODA 역량강화 교육 현장



▶ 향후계획(2026년)

- 1월: 2차 피지 해수열 ODA 사업 착수
- 2월: 현지 해수 취수 및 냉방 공사를 위한 현지 방문 및 LoA 협의
- 4월: 피지 해수 취수 및 냉방 공사를 위한 주요 설비 국내 제작
- 7월: 현지 설비 구축을 위한 기자재 이송 및 현지 기초 공사 착수

▶ 기대효과

- (단기) 수경재배에 의한 과채류 생산 및 활용 가구수 50가구 이상 발생과, 지속가능해수이용 아카데미(SSUA) 교육생 배출을 통한 역량 강화
- (중기) 남태평양 대학교내 해수 자원 활용 기술 실증 모델 구축 및 캠퍼스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과 식수 안정화, 인근 도서국의 사업 모델 제시
- (장기) 해수 담수화 보급을 통한 식수 문제 해결, 해수열 이용 냉방 시스템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저감, 남태평양 도서 국가의 해수활용 기술 보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임승택 연구원  
limst@kriso.re.kr

05

## 주요 행사

### 기추진 행사

#### WMU-MOF-KMI CAPFISH 1차 성과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행사명) CAPFISH Evaluation Workshop (CAPFISH 프로그램 성과 워크숍)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MOF),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AO 산하 지중해수산위원회(GFCM)
- (참여 기관 및 참석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해사대(WMU), 지중해수산위원회(GFCM),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 소속 국가 IUU어업 관련 국가 약 10개국 정부관계자 20여명
- (일자 및 장소) 2025.12.09.(화) ~ 2025.12.10.(수) / 이탈리아 로마 FAO GFCM 로마본부

▶ 주요내용

- (Fisheries Governance) GFCM은 이행준수 체계를 법령 중심에서 실제 현장 이행·효과성 평가로 전환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공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역량 부족·기관 간 조정 미흡·소규모 어업 관리 및 보조금 문제를 핵심 거버넌스 과제로 인식함
- (Fisheries Sustainability) IUU 대응은 국가 단독 조치보다 지역 차원의 정보 공유와 공동단속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으며, 감시 인프라 확충과 시장조치가 수산 지속가능성 확보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됨
- (Social Protection and Cooperation) 다수 국가에서 어업인 대상 사회보호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남획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복지 중심 보조금과 생산자 협력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국가·지역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됨
- (System Thinking) 수산관리를 환경·경제 중심에서 사회적 지표와 참여형 공동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사회·경제·환경 통합 데이터와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WMU-MOF-KMI CAPFISH 1차 성과 워크숍

### ▶ 기대효과

- 2023년도 CAPFISH 프로젝트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참가국의 제도·정책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과 확산 기반 마련
- 성과지표(KPI Index) 공동개발을 통한 국제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책협력 강화
- KMI-WMU 간 협력을 기반으로 차년도 교육교재 및 차기 프로그램 공동기획 추진
- FAO·GFCM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 ODA의 국제적 위상 및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 전경



단체사진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민정 연구원  
mjlee@kmi.re.kr

##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연구진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허재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김주형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정효림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임해주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사무원

염승식 국제개발협력센터 사무원

###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 해양수산

# ODA 리포트

발행일 2026년 1월 30일

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서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